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수립방안 연구*

김명훈** · 한지혜***

1. 머리말
2. 구술기록과 온라인 서비스 필요성
 - 1) 구술기록의 의미와 중요성
 - 2)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 및 맥락의 중요성
3.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사례
 - 1) 국내 사례
 - 2) 해외 사례
4.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체계 수립
 - 1) 기획단계
 - 2) 실행단계
 - 3) 정리단계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2년도 기상청 「기상·기후 역사자료의 수집과 활용방안 연구」(CATER 2012-6130)의 지원을 받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겸임교수. 주요 논저: 「디지털 구술 기록의 생산 및 정리 보존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2010;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2010.

*** 삼척시청 기록연구소.

[국문 초록]

최근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기록으로 남지 않은 소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범사회적으로 공유 가능한 기반을 제공해주는 유용한 방안이다. 그동안 구술기록은 기록의 결라부분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활발히 생성되어 왔지만, 주로 개인적인 연구 차원에서 이용될 뿐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은 미진하게 이루어져왔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접근 방식을 통해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구술기록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보검색 환경의 변화와 구술기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성은 온라인 서비스에 유리하다는 점 등의 여러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히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구술기록의 정체성이다. 구술기록이 어떠한 과정과 연구 작업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구술기록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바탕으로 생산되었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 구술기록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술기록의 정체성은 구술기록 맥락관계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구술기록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구술기록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기관의 목적 및 구술기록의 성격에 따라 대중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구술기록의 정체성을 확보한 온라인 서비스 수립 방안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주제어: 구술, 구술사, 구술기록, 온라인서비스, 기록관리

1. 머리말

녹음 및 녹화기술이 보편화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술은 전 학문 영역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구술은 부족한 기록의 결락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미래에 전달할 책무를 지닌 기록관리 영역에서 구술은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회의 모습이나 기록 속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맥락을 밝히는 차원에서, 또한 결락된 역사적 사실을 보충하거나 파기된 기억을 기록으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점차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술기록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게 보통이다. 텍스트 위주의 기록관리 현실에서 구술기록은 전문적인 관리·보존 및 활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은 대개 연구자의 개별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후 개인적 연구에 활용한 다음 전문적인 관리조치가 수행되지 못하는게 일반적이며, 관리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활용상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미국의 구술사가 리체(Ritchie)는 ‘인터뷰는 기록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아카이브나 도서관, 다른 보존소에서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구술 그대로의 형식으로 출판 될 때 비로소 구술사가 된다’¹⁾고 주장하면서, 구술기록은 단순히 기록되고 보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최근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이러한 리체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소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범사회적으로 공유 가능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Donald A. Ritchie, *Doing Oral History*,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4, p.5-6.

이에 본고에서는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방안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접근방식을 통해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구술기록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보검색 환경의 변화와 구술기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성은 온라인 서비스에 유리하다는 점 등의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히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 기록학계에서는 구술기록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연구성과들은 먼저 구술기록의 수집에 관한 연구²⁾, 구술기록의 정체성 정립에 관한 연구³⁾, 그리고 구술기록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⁴⁾로 구분할 수 있다. 구술기록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김미주와 노대진의 연구성과가 제출되었다 김미주는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메뉴 분석을 통해 국내 구술자료의 인터넷 서

-
- 2) 이에 대해서는 김지수, 「대통령구술기록 수집방안-김대중 대통령 구술 수집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김현승, 「해군 구술기록의 수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위원회의 면담조사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한정은, 「대중적 이용을 위한 구술기록의 수집과 활용」,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등을 참조.
 - 3) 이에 대해서는 김민영, 「구술기록의 신뢰성 확보 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한국기록학회, 2010을 참조.
 - 4) 이에 대해서는 장진철, 「구술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권미현, 「구술자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선영란 외, 『구술기록의 기록학적 관리방안』,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보고서 15, 2006; 이화은, 「구술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정연,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한국정보관리학회, 2009 등을 참조.

비스에 적합한 메뉴 설계를 제안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례 제시에 집중할 뿐 구술기록의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⁵⁾ 노대진은 구술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해 오프라인 상의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논의치 않고 있다.⁶⁾

한편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와 제공자 지향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⁷⁾ 또한 온라인 서비스는 특성상 이용자 접근의 편의성과 정보검색의 신속성, 온라인 접근을 시도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성을 지향한다. 이와 다르지 않게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도 구술아카이브를 통한 그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정보 전달의 도구이자 성과물 홍보에 더욱 집중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구술기록의 정체성이다. 구술기록이 어떠한 과정과 연구 작업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구술기록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바탕으로 생산되었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 구술기록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술기록의 정체성은 구술기록 맥락관계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구술기록의 정체

-
- 5) 김미주, 「인터넷을 통한 구술자료 서비스 현황과 메뉴설계 방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6) 노대진, 「국내 구술사료의 관리 실태와 서비스 방안」, 원광대학교 기록관리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7) 기존의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동향으로는 우수영,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질의응답 서비스 개선방안: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황정원, 「기록 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성 테스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2006; 김은실, 「이용자 유형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등을 참조.

성 형성을 위한 구술기록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기관의 목적 및 구술기록의 성격에 따라 대중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구술기록의 정체성 및 기록품질을 확보한 온라인 서비스 수립 방안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구술기록의 중요성 및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 3장에서는 국내외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 관해 벤치마킹 가능한 실제 사례를 고찰할 것이다. 이어 4장에서는 구술기록의 활용시 정체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전제에서, 구술기록의 맥락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 수립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구술기록과 온라인서비스 필요성

1) 구술기록의 의미와 중요성

구술은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기억의 보존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문자의 발명 이전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통해 해당 사건 및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구술은 인류의 본능적 도구로 자리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등장한 구술은 과거의 직접적 경험을 기반으로 구술자의 기억에 대한 학문적 조사과정이라는 점에서, 전통사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소유되어 수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구전(Oral Tradition)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⁸⁾

8) William W. Moss,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James Gregory Bradsher ed.,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8, p.150.

구술이 본격적인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사 연구 사조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의 정치사 및 제도사 연구경향을 탈피하여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회 하층민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34년 미국의 Allan Nevins에 의해 구술사(Oral History)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구술은 역사학 및 사회학, 인류학 등 다방면의 학문 영역에서 독립된 연구방법론으로 자리하게 되었다.⁹⁾ 또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다. 20세기 들어 녹음 및 녹화기술의 보급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말’의 기록화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회의 제반 영역에 대한 기억을 음성 및 영상으로 남기는 구술작업이 보편화되었다.¹⁰⁾

구술은 생존자와의 대화를 통해 과거 구술자가 경험한 사실내역을 기억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 먼저 구술자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비롯되어 구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술성’, 둘째 구술자의 기억과 경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관성 및 개인성’, 셋째 구술자와 면담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 넷째 구술이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발현된다는 점에서 구술 내용이 지닌 ‘유일성 및 한시성’, 다섯째 구술이 텍스트화 되는 과정에서 또한 구술이 담아야 하는 주제 범위를 고려할 때 그 활용에 있어 ‘유동성 및 민감성’을 지닌다.¹¹⁾

또 하나의 기록 내지 자료로 구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문자로 작성된 기록을 신봉하는 근대 이후의 실증주의 영

-
- 9) 20세기 이후 서구 학계의 구술사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서울, 2006, pp. 20-34를 참조.
 10) William W. Moss,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James Gregory Bradsher ed.,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8, p. 150.
 11)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한국기록학회, 2010, p. 242.

향 속에, 개인의 주관적 기억을 증거로 남기는 구술은 철저히 배척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록보존기관에서 구술기록은 단지 음성 내지 시청각기록물의 유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관리·보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구술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당대 제도의 공식적인 행위들만이 기억되기 쉬우며 비공식적인 행위들은 주로 기록으로 남지 않음을 염두에 둘 때, 구술기록은 문자로는 남길 수 없는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¹²⁾

당대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후대에 전승하는 정보자원이므로써 구술기록이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구술이 문자화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기억을 남기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거 내지 기억을 구술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자화된 기록이 당대 활동을 기록하지 못하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던 곳에 구술기록은 또 다른 기록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둘째 결락 기록물의 보완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당대 제도의 공식적인 행위들만을 남기기 쉬우며 제도권 밖의 비공식적인 일상 행위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소장기록물 분석을 통해 기록물이 결락된 부분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통해 결락 부분을 구술자의 기억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구술기록은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채울 수 없는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기록의 맥락 확보와 평가 측면이다. 기록의 평가는 현재의 사회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업으로, 최소한의 기록을 통해 최대한의 사회상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을 모토로 삼아왔다. 하지만 당대의 완벽한 사회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명제는 난해한

12) Jean-Pierre Wallot & Normand Fortier,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The Oral History Reader*, Robert Perks, Alistair Thomson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pp.367-375.

사안이며, 이러한 점에서 구술기록은 문자화된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결락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당대의 사회상을 형성시키는데 일조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록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 맥락의 확보 측면에서도 구술기록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술기록은 행위 및 사건 이면에 놓인 문자화된 기록에는 작성치 못하거나 미처 남길 수 없었던 생성 당시의 보다 심층적인 맥락을 생존자의 경험에 바탕을 둔 기억을 통해 확보케 해주기 때문이다.¹³⁾

이처럼 구술기록은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활용해야 할 중요한 정보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국내에서도 구술기록이 지닌 의미 및 중요성에 입각해 구술채록 사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생성된 구술기록은 각자의 연구 목적을 위해 활용된 후 사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리 및 보존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그 생성 사실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구술기록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범사회적인 공유 및 활용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2)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 및 맥락의 중요성

①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

기록정보 서비스란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물과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활동¹⁴⁾으로써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록을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유형에는소

13)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한국기록학회, 2010, pp. 90-107.

14) Mary Jo Pugh, 『기록정보서비스』, 설문원 역, 진리탐구, 서울, 2004, p.23.

장기관에 대한 정보와 소장기록물에 대한 정보, 소장기록물에서 추출한 정보, 기록물 생산자에 관한 정보, 다른 기록관이나 정보원으로서의 안내, 저작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관한 보안 및 공개에 관한 관련법 정보,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 소장물의 복제와 대출 등에 관한 정보가 있다.

기록학계에서 서비스분야는 기록관리 라이프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여 다른 기능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두각을 보인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는 기록관리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환경과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 방향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기록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온라인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으며 서비스 방법 및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록물에 대한 이용자 정보접근 방식은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접근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카이브 서비스도 이러한 정보서비스 환경변화에 맞춰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추구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소장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어떤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록이 이용가능한지 그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떤 기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온라인이란 공간은 이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기록물의 보존, 활용 가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등장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보관 및 저장뿐만 아니라 이용과 활용이라는 면에서도 뛰어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¹⁵⁾ 이를 바탕

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용자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구술기록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란 온라인 접근방식을 통해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구술기록을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음성 및 영상자료와 같은 구술기록 이용은 원칙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지향해 왔다. 구술기록의 오프라인 이용은 구술기록 소장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구술기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구술기록을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구술기록 이용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용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전문적인 시설이 구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람 신청대, 반납·대출대, 열람석, 검색도구, 복사기, 사물함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술기록을 재생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가 마련되어야 하는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오프라인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술기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모색하기 위해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기관의 소장 구술기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구술사 연구 목적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에는 워크숍, 전시회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적극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이용자의 입장에서조차 자신이 필요로 하고 찾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15) 윤택립, 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서울, 2006, p.158.

모든 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면에서 시간 및 공간, 거리의 제약 없이 효과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구술기록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일부 구술사 분야에서는 역사쓰기와 구술기록 수집의 괴리현상을 지적한다.¹⁶⁾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수집하고자 자신의 연구 의도에 맞게 새로이 생산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연구자가 구술기록에 대한 정보수집시 생산 현황과 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현실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와 목적에 맞는 구술기록을 파악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같은 괴리를 좁히고 구술기록을 통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자의 흥미로운 관심을 적극적인 관심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는 구술기록에 일반적인 흥미를 갖고 있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구술기록에 접근하고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나아가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구술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구술기록에 대한 충실한 서비스는 온라인의 이점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보다 심도 있는 관심으로 연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16) 허영란, 「구술 아카이브의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한국구술사학회 창립학술대회 발표집, 2009, pp.18-19. 이용기는 구술사 연구와 구술채록이 이전에 비해 대단히 진전된 것은 틀림없으나 그럼에도 생산에 치우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많은 고민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상당한 양의 구술자료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한 구술사 연구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용기,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와 현실』 71, 한국역사연구회, 2009, p.305.

셋째,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구술기록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시켜 준다. 국내에서 구술사가 등장한 이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술기록 및 구술사 연구는 일부 학자들에게만 국한된 영역으로 대중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내 구술사 전통이 해외에 비해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현재 구술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구술기록은 일부 제한된 연구자에 의해서만 활용되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구술기록의 의미와 학문적,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술기록의 학문적 입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술기록이 대중을 지향한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자 외에 일반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영역에 머문다면 구술사의 역할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¹⁷⁾

넷째, 현재 국내 구술아카이브 환경은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구술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중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경우 소규모 연구단으로서 인력, 예산, 업무적인 면에서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일반적인 흥미와 관심으로 접근하는 이용자의 경우 직접적인 문의와 대응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이용자의 무관심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자 및 관련 기관에서는 구술사 연구를 지속해 오면서 축적된 구술기록의 현황 파악 및 유관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안타까워한다. 통합적인 구술채록 및 구술기록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의미가 있다.

17) 한국구술사연구회, 『방법과 사례, 구술사』, 선인, 2005, p.220.

②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맥락의 중요성

기록의 맥락이란 기록의 생산·입수·저장 또는 활용을 둘러싼 조직적·기능적 환경과 활동상의 정황을 의미한다.¹⁸⁾ 이는 기록을 생산한 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문서들 사이에 유기적 관계가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구술기록의 맥락은 위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괄하는 의미에서 타 기록과의 연계성, 구술채록 프로세스 내에서 형성하는 구술기록간의 연계성과 더불어 구술내용 전개과정의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구술내용 전개과정에서 맥락은 구술내용의 전후 문맥, 즉 인과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구술자가 당시 사회적·정치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이 구술자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의 과정이다. 나아가 구술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반응하였는지 구술자와 구술자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구술자가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불러오는 과정에서 구술자 현재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구술자를 둘러싼 여러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가 구술내용의 맥락에 반영된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맥락은 구술기록 생산 및 수집을 위한 기획단계부터 정리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생산된 모든 기록을 포괄한다. 지금까지 구술기록은 기록물간의 연계성이 적은 매뉴스크립트적 성격으로 인식되어 왔다. 업무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여타 기록과 달리 특정 목적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집된다는 이유에서이다.

구술기록 생산을 위해서는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각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

18)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p.48.

19) 김정하,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1, 한국기록학회, 2009, pp.25-26.

동을 증거하는 구술기록을 생산하며, 이렇게 생산된 구술기록은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형성한다. 즉 구술채록 프로세스 하에서 생산된 구술기록은 매뉴스크립트의 성격이 강한 인위적인 컬렉션과는 다르게 기록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조되는 아카이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구술기록의 맥락은 기록관리의 대상으로서 구술기록의 개념 확장 속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구술기록관리는 구술채록의 결과물로서 구술기록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기록 생산 및 수집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수행하는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기록을 생산맥락을 갖춰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구술기록의 맥락은 관리·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서비스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구술기록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구술기록 생산 및 수집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의 주제와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술기록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구술기록의 맥락을 갖춰 생산프로세스 각 단계의 구술기록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이용의 경우 이용자는 담당자의 도움이나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된 구술기록 및 정보만을 통해 구술기록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구술기록 및 정보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공자에 의해 구술기록의 서비스 유형이 결정되므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선택의 범위가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기록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구술기록의 성격과 생산프로세스에 대한 고려 없이 구술기록의 맥락을 배제한 채로 음성 및 영상자료와 같은 산출물 위주로 서비스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술기록의 맥락을 갖춘 온라인 서비스는 구술기록이 기록학적

으로 생산·수집되고 관리·보존되어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기록관리 단계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단계로, 앞서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구술기록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보존되었는가의 여부는 얼마나 수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3.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사례

1) 국내 사례

①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²⁰⁾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이하 민중생활사로 약칭)은 2002년 출범 이래 역사를 남기지 못한 민중들의 생활사를 재구성하고자 민중의 삶 속으로 들어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밝히기 위한 연구 및 각종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가 구술기록이다.

민중생활사 구술기록은 연구단의 소장자료를 구분하는 10가지 분류체계 내에 정리 및 관리된다. 그러나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시에는 이 10가지 분류체계에 기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기록 매체별 구분을 통해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구술기록은 매체별로 구술, 사진, 동영상, 문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술’은 음성자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사진은 구술채록 상황의 사진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동영상

20) <<http://www.minjung20.org/main>>

은 영상자료를 말하며, 문서는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DB작업을 거쳐 이미지를 서비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중생활사 구술자료는 매체별로 구분되어 기술요소와 함께 제공된다. 즉, 구술자료 중 '구술'의 경우 음성자료와 녹취록, 기술요소의 여러 항목을 바탕으로 구술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은 사진자료와 기술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영상'은 영상자료와 기술요소로, '문서'도 같은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현재 '구술'에서 음성자료와 함께 '녹취문 보기'가 제공되지만 녹취문은 구술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구원에 한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각 구술자료의 기술요소는 아래의 도표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구술 기술요소

기 술			
제목			
주제			
주요 내용			
자료 배경			
이름 & 날짜		물리적 형식	
제작년월일		기록언어	
제작기관		기록형태	
제작자		자료형식	
제보자		원자료 위치	
식별번호			
자료번호			
위 치			
주소			
관련 자료			
자료번호	제목	내용	형식
접 근			
저작권			
자료출처			

민중생활사의 기술요소는 제목, 주제, 주요내용, 자료배경, 이름 및 날짜에 제작년월일, 제작기관, 제작자, 제보자와 물리적 형식에는 기록언어, 기록형태, 자료형식, 원자료 위치와 식별번호와 위치, 그리고 관계 자료에 대한 정보와 저작권 자료출처의 접근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략하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구술자료의 생산과정 및 구술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나, 상당히 간략하게 제공되므로 구체적인 구술기록의 맥락과 배경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또한 ‘연구단 소개’를 통해 연구단의 연구 방향 및 다양한 자료의 수집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특정 구술채록 수행과정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영상 및 음성자료 외에 배경자료 및 정보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정보관²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정보관은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통해 생산한 구술기록을 현재 ‘구술로 만나는 한국 예술사(The Oral History Of Korean Arts)’(이하 한국 예술사로 약칭)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 예술사는 구술기록을 중심으로 구성된 ‘구술기록 전문(專門)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로, 구술채록 전반에 대한 소개와 비교적 다양한 구술기록 및 정보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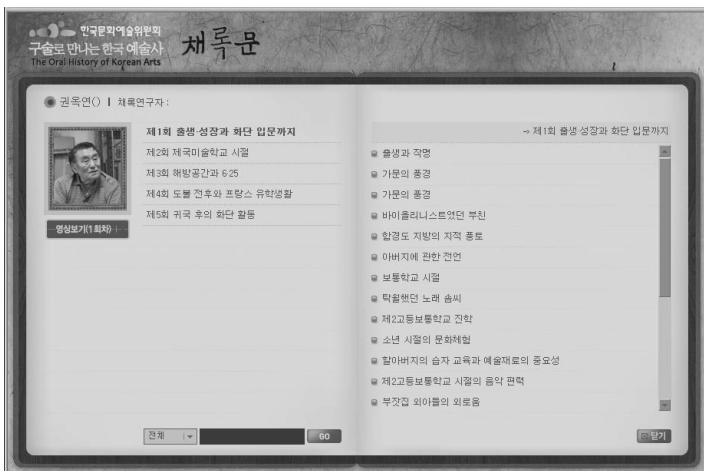
한국 예술사는 사업소개, 구술아카이브, 참고자료, 게시판,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술기록은 ‘구술아카이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개’에서는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의 추진배경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참고자료’에서는 한국 예술사가 구술사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있는 국내외 구술사 분야 기관을

21) <<http://oralhistory.arko.or.kr/oral/main.asp>>

소개하고 링크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게시판’은 자유게시판과 FAQ로 구성되어 한국 예술사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국 예술사의 구술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다. ‘구술 아카이브’의 구술기록은 예술분야별로 대분류되어 있으며, 하위에 구술자별 리스트가 제공된다. 예술분야는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문화일반의 네 분류와 사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에는 ‘사건사’ 관련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하위 구술자별 리스트는 예술인(구술자명), 출생년도, 분야(구술자 전공), 채록연구자(면담자)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예술인을 선택해 들어가면 예술인의 상세화면이 나타난다. 예술인 상세화면은 예술인의 프로필, 채록관, 작품 활동, 연구자료, 앨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필이 기본화면으로 나타난다. 프로필에는 예술인의 수련과정 및 학력, 활동경력, 수상력, 작품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술인의 삶과 작품세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채록관 상세목록 화면



채록관은 구술내용과 채록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록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이름과 직위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제공된다. 구술내용은 ‘영상보기’와 주제구분, 해당 주제의 녹취문이 제공되는데, 이는 구술자료 중 영상자료와 상세목록, 녹취록이 제공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상자료는 상세목록의 주제별 구분에 따라 제공된다. 1차 주제별 분류가 5회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영상자료는 5회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상세목록은 주제별로 1차 구분되어 있고, 해당 주제 하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용자는 전체적인 구술내용 파악이 가능하며 필요한 또는 관심 있는 내용에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녹취록은 세부목록의 주제별로 이용할 수 있는데 녹취록은 문서파일 형식이 아닌 온라인 화면상에서 녹취문 형식으로 제공하며,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녹취문은 구술자의 구술에 가깝게 기술되고 녹취록 작성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석을 첨부하여 구술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상자료 및 녹취록과 더불어 예술인의 활동과 연구 성과에 대해 ‘작품 활동’ 및 ‘연구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앨범’에서 구술자 관련 모습의 사진 자료를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술가 관련 정보는 구술자에 대한 파악과 구술내용을 이해하는데 이용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해외 사례

① The California University Regional Oral History Office²²⁾

The California University Regional Oral History Office(이하 ROHO)는 다양한 구술프로젝트를 프로젝트별 또는 주제별 접근방법을 통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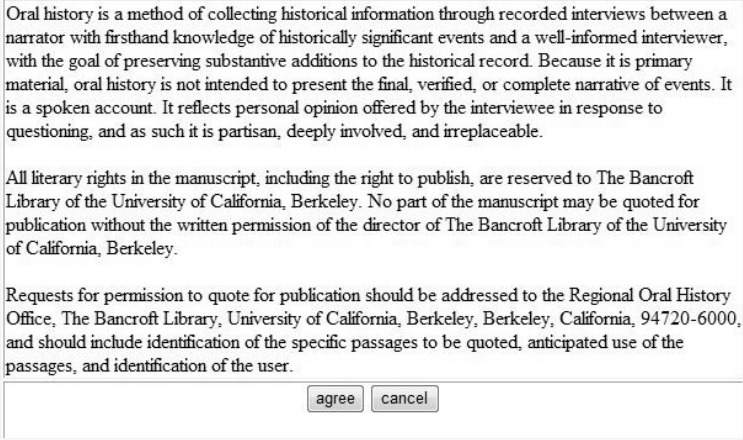
22) <<http://bancroft.berkeley.edu/ROHO/>>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Audio and Video 영역에는 특정 구술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생산된 구술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구술프로젝트마다 제공하는 구술기록의 유형 및 정보의 형식이 일부 다르게 제공되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음성 및 영상자료 제공에는 소극적이고, 녹취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음성 및 영상자료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한 내용 중 일부를 주제에 맞게 편집 가공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공개 가능한 구술자에 한하여 영상 및 음성자료를 제공한다.

Audio and Video에서 제공하고 있는 녹취록뿐만 아니라 ROHO에서 서비스하는 녹취록은 PDF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내용 구성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단지 구술자와 면담자의 구술내용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해당 구술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배경 및 목적, 구술기록을 이용하기 위해 인지해 두어야 할 사항 및 면담자의 후기 등이 녹취록 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격적인 면담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녹취록의 세부목록과 해당 구술기록이 포함된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일부 녹취록의 경우 면담내용 중 구술자의 대답에 해당 시점을 '시:분:초'로 시간을 표기하거나, 구술자 관련 사진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ROHO의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구술기록 이용을 위한 '구술기록 이용 동의' 절차를 설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술기록 이용 동의'는 음성 및 영상자료, 녹취록 등을 이용할 때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하나의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구술사의 개념과 목적, 방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구술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해당 연구소에 검증을 받아야 함을 알리고 있다.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구술기록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구술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명이나 기획단계의 구술기록 및 정보가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

〈그림 2〉 ROHO의 ‘구술기록 이용 동의’ 화면²³⁾



러나 이러한 한계를 상세한 녹취록을 제공함으로써 보완한다. ROHO에서 제공하고 있는 녹취록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녹취록 표지(기관명 및 구술자명, 구술자의 직업, 프로젝트 수행 년도)
- 구술채록을 수행한 개요

23) 책임제한 동의 사항은 ‘구술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직접적인 정보를 구술자와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견문이 넓은 면담자 사이에 인터뷰를 통하여 그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정보 수집 방법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구술사는 결정적이며 증명되거나 또는 사건의 완성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두로 설명된다. 그것은 질의응답에서 구술자에 의해 제공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다. 발행된 권리를 포함한 원고 안에 있는 모든 문학권리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밴크로프트 도서관에 보유된다. 출판에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밴크로프트의 서면으로 된 인가 없이는 원고의 어떤 부분도 출판을 위해 인용될 수 없다. 출판을 위해 인용을 원하는 허가요청서는 지역구술사연구소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밴크로프트 도서관 94720-6000으로 보내야 하며, 사용자는 인용할 구절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구술사에 대한 설명 및 구술기록에 대한 설명
- 구술기록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 및 이용을 위한 안내
- 구술자 사진
- 구술기록이 포함된 시리즈에 대한 소개
- 인터뷰 후기
- 상세목록 및 간략 개요
- 인터뷰의 개요 및 내용

녹취록이 비단 녹취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술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구술기록 이용을 위한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녹취록만으로도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하고 관심 있는 구술기록과 정보를 파악하고 얻을 수 있다.

②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²⁴⁾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은 John F Kennedy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 인사들의 구술을 수행하고, 보존 및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웹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구술프로젝트에서는 먼저 ‘The Oral History Program’을 통해 프로젝트의 목적과 배경, 수행과정, 구술기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술자의 말이 녹취록으로 풀어지는 과정에서 구술 내용이 수정,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술기록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구술자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연구자는 인터뷰의 원본자료를 듣고 구술내용과 관련된 배경정보를 참고 할 것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구술기록 인용에 있어 제한받게 됨을 알리고 있다.

24) <<http://www.jfklibrary.org/Historical+Resources/Archives/Oral+History+Project>>

〈그림 3〉 John F. Kennedy의 Oral History Project 구술자 상세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the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HOME, HISTORICAL RESOURCES, JFK LIBRARY & MUSEUM, and EDUCATION & PUBLIC PROGRAMS. Below this is the main header: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followed by a sub-header: HISTORICAL RESOURCES. A breadcrumb trail reads: Home > Historical Resources > Archives > Summaries > Stephen Ailes, 1921-2001.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Summaries Stephen Ailes, 1921-2001'. On the left, under 'MULTIMEDIA:', there is a list of oral history interviews with links: Stephen Ailes Oral History Interview: JFK #1, 8/21/1968; Stephen Ailes Oral History Interview: JFK#2, 9/26/1968; Stephen Ailes Oral History Interview: JFK#3, 10/16/1968; Stephen Ailes Oral History Interview: JFK#4, 10/30/1968. On the right, there is a biographical text: 'Counsel to the U.S. Economic Mission to Greece (1947); Legal consultant, Office of Price Stabilization (1951); Under Secretary of the Army (1961-1964), Secretary of the Army (1964-1965); President,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1971-1977). Oral History Interviews (1968): Ailes completed four interviews for the John F. Kennedy Library. JFK#1 interview: 8/21/1968; JFK#2 interview: 9/26/1968; JFK #3 interview: 10/16/1968; JFK #4 interview: 10/30/1968. Each interview comments upon Ailes' role as Under Secretary and Secretary of the Army and his time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among other issues.' Below the text is a portrait of Stephen Ailes with a caption: 'Stephen Ailes, Under Secretary of the Army (1961-1964), Secretary of the Army (1964-1965)'. At the bottom of the pag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VISIT US, STORE, SEARCH, FAQ, SITE MAP, REFERENCE DESK, WHITE HOUSE DIARY, TIMELINE, VIRTUAL TOUR.

John F Kennedy의 구술기록은 구술자명의 알파벳순으로 목록이 제공되며, 목록에는 구술자명, 구술자의 생애, 직업 및 제공되는 구술기록의 분량이 나타난다. 온라인으로 소장 구술기록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는데 그 중 일부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구술기록은 녹취록에 제한된다. 구술자를 선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은 구술자 상세화면이 나타난다. 구술자 상세화면에는 구술자에 대한 간략한 생애와 구술채록 및 주요 주제가 간략하게 제공된다. 구술기록은 'Multimedia'에서 녹취록을 이용할 수 있고 음성 및 영상자료는 서비스하지 않는다. 녹취록은 인터뷰 차수 및 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녹취록은 같은 형식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PDF파일 형식으로 전문이 제공된다. 녹취록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개요와 상세목록, 구술내용, 성명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개요에는 구술자 및 면담자, 인터뷰일, 인터뷰 장소, 녹취록 분량, 구술자

소개와 구술기록 접근 및 이용제한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구술기록 이용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구술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John F. Kennedy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특징은 녹취록에 포함된 구술기록에 있다. 녹취록은 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구술내용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개요와 상세목록, 접근 및 저작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 중 구술기록 활용 및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의 구술기록 원본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구술기록 이용 및 접근제한 사항을 일부 언급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John F. Kennedy의 사례와 같이 원본 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구술자와 면담자 또는 면담기관 간의 동의와 약속을 바탕으로 구술기록이 공개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 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며, 구술채록 과정 및 구술기록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 및 음성자료가 일체 온라인 서비스되지 않으며, 구술기록 검색 리스트도 구술자명의 알파벳순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의 특정 관심 또는 주제를 통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③ The University of Virginia Miller Center Public Affairs²⁵⁾

The University of Virginia Miller Center Public Affairs(이하 Miller Center)의 Presidential Oral History Program은 미국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변 인사들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그들의 일에 대해서 후대에 남기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술프로그램을 통해 Miller Center는 후대에게 지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진정한 목소리를 보존하고 공공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술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은 웹사이트의 'Program Description'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되는데, 구술프로그램의 수행 배경과 목적, 구술프로그램이 갖는 의미와 과정, 프로그램의 포괄

25) <<http://millercenter.org/academic/oralhistory>>

적인 범위 및 주제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Miller Center의 구술기록은 대통령 프로젝트별로 제공된다. 프로젝트는 Presidential Projects와 Special Projects로 구분하며, 전 대통령에 대한 구술프로젝트는 전자에 그 외 관련인물 및 사건에 대한 프로젝트는 후자에 해당한다. Presidential Project에는 Jimmy Carter, Ronald Reagan, George H. W. Bush, William J. Clinton의 구술프로젝트가 포함되며, Special Projects에는 Edward M. Kennedy, Lloyd N. Cutler, Falklands Roundtable, Congressional Affairs Symposium로 구분된다. 이중 일부는 현재 구술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 구술기록은 아직 제공되지 않는 상태이며, 온라인에서 수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목적, 과정, 향후 구술아카이브 구축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 Presidential Oral History Program의 구술자 상세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Miller Center of Public Affairs website. The header includes the logo and name of the center, along with navigation links: HOME, ABOUT US, NEWS ROOM, ACADEMIC PROGRAMS, PUBLIC PROGRAMS, POLICY PROGRAMS, SCRIPPS LIBRARY, and DONATE. A search bar is located in the top right corner.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Howard H. Baker, Jr.:

Howard H. Baker, Jr.
Oral History detailed view.
Speaker: Sen. Howard Baker, Jr.
Date: August 24, 2004
Description:
In this short interview, Senator Baker begins with a discussion about his appointment in February 1987 as White House Chief of Staff, succeeding the embattled Donald Regan in the wake of the Iran-Contra scandal. He describes his decision to abandon his 1988 bid for the presidency and join the administration at Reagan's request, and his eighteen-month tenure in the White House, specifically his efforts to defuse the scandal and forge a new legislative agenda for the final two years of the administration. During this section, Baker offers insights into the sense of humor, intelligence, style, and other personal qualities of Ronald Reagan. The interview also touches briefly o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nomination of Robert Bork and Douglas Gmsburg to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on U.S.-Soviet bilateral relations.

Downloadable Content

- Transcript:
- Materials:

녹취록은 구술자 목록 순으로 제공되는데 구술자명과 직위, 면담일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구술자의 상세화면은 구술자와 면담일, 그리

고 기술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술이 제공된다.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되 일부 기술자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가 제한된다. 온라인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기술기록은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상세화면에 나타나는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기술기록에 접근할 수는 없어도 대략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취록은 PDF파일 형식으로 전문이 서비스되며, 공개가 제한된 내용은 검게 삭제하여 제공된다.

Jimmy Carter를 제외하고 제공하고 있는 ‘Research Materials’에는 Timeline, Suggested Topics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Timeline은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역사적 배경과 사건 등에 대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한 자료이며, Suggested Topics은 예비질문과 같은 핵심 주제에 대한 자료이다. Bibliography는 프로젝트 수집과정에서 참고한 관련자료 목록이다.

〈그림 5〉 Miller Center의 Timeline 및 Suggested Topics 사례

<p>LLOYD CUTLER CAREERS TIMELINE (PRE-1970) <i>Prepared by Ryan Taylor and Darby Morrison</i> <i>Miller Center of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Virginia, 3/20/2003</i></p> <p>1917 Cutler is born in New York City</p> <p>1946 Cutler receives a B.A., cum laude, from Yale University</p> <p>1949 Cutler graduates magna cum laude from Yale Law School, where he served as Editor-in-Chief of the Yale Law Journal</p> <p>Cutler clerked for Judge Charles Clark of 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 who, recently left his position as dean of the Yale Law School to join the Court.</p> <p>1940 Cutler passes the New York State Bar</p> <p>1940-1942 Cutler enters private practice with the New York City firm of Cravath, de Gersdorff, Swaine & Wood. His work at the firm centers largely on issues associated with the reorganization of railroads.</p> <p>1941 Cutler marries Louise W. Howe</p> <p>1942 Cutler moves to Washington, D.C. to work in the Roosevelt Administration's Lend-Lease Administration. In July, Cutler becomes the youngest prosecutor in the case (<i>Ex Parte Quirin</i>) against the Nazi saboteurs. Cutler then goes to North Africa to become Deputy Chief of the Lend-Lease Administration section of the North African Economic Board, a part of Allied Force Headquarters in Algiers</p> <p>1944-48 Cutler works as a military intelligence specialist at the Pentagon where he advances to the rank of First Lieutenant.</p> <p>1945-46 Cutler takes a position at the State Department as Assistant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 for Latin America.</p> <p>1946 Cutler joins Oscar Cox, his boss at the Lend-Lease Administration, and two other lawyers from New York firms to start the Washington, D.C. firm of Cox, Langford, Stoddard & Cutler.</p> <p>1952 Cutler serves as staff advisor to the so-called Brownell Committee on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government communication intelligence activities.</p>	<p>LLOYD CUTLER SUGGESTED TOPICS – SESSION I <i>Prepared by Darby Morrison</i> <i>Miller Center of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Virginia, 3/20/2003</i></p> <p>Backgrou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rly personal influences. • Experience as an undergraduate at Yale University. • Attending Yale Law School. Service as Editor-in-Chief of the <i>Yale Law Journal</i>. • Clerking for Judge Charles Clark of 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 <p>Private Pract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r work with Cravath, de Gersdorff, Swaine & Wood. • Decision to stay in Washington, D.C. and the creation of Cox, Langford, Stoddard & Cutler. • Founding of Wilmer, Cutler & Pickering. • Important cases and major legal issues that occupied your practice. • The Washington, D.C. legal community. • Leadership positions in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p>Government Service During WW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erience as a prosecutor in the Nazi German saboteur case, <i>Ex Parte Quirin</i>. • Tenure as Deputy Chief of the Lend-Lease Administration section of the North African Economic Board in Algiers. • Service as a Military Intelligence Specialist at the Pentagon. <p>Truman Administ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r work as Assistant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 for Latin America in the State Department. • Staff advisor to the Brownell Committee on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government communication intelligence activities. <p>Kennedy Administ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r activities on the 1960 Kennedy presidential campaign. • Your service as head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on the making and enforcement of air safety rules, known as the “Tightrope Committee.” • Assistance to Robert Kennedy and Byron White in staffing the Justice Department. • Negotiations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to arrange delivery of medicines in return for the Bay of Pigs hostages. • Work with the Kennedy Justice Department on issues including anti-trust tax policy and the litigation with the Swiss regarding American seizure of I.G. Farben assets during World War II. • Decision to turn down an invitation to serve 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conomic Affairs. • Creation of the Lawyers’ Committee on Civil Rights Under Law.
--	--

위의 그림은 Research Materials의 Timeline과 Suggested Topics의 한 예이다. Timeline은 Lloyd N. Cutler 경력에 관한 약력정보로 Lloyd N. Cutler의 출생부터 주요 경력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였다. 우측의 Suggested Topics은 Lloyd N. Cutler의 구술면담을 수행한 핵심주제와 세부주제를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Interview Team 및 Scholars and Staff는 구술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및 직업, 프로젝트의 책임분야, 연구 분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Miller Center는 구술프로젝트 내에서 생산된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뉴스, 출판물,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Miller Center의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기획단계의 구술기록 및 정보가 충실하게 서비스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Miller Center의 구술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개와 목적, 아카이브 방향 등을 비롯하여 각 프로젝트마다의 목적과 수행과정, 배경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특히 Research Material에 해당되는 각종 자료는 본 프로젝트의 구술기록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참여자 및 구술자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면담자에 대한 정보가 이름, 직위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면담자에 대한 상세정보는 구술프로젝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얻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비해 음성 및 영상자료 서비스에는 소극적이며, 면담후기 및 일지와 같은 면담자 관점이 부재하다. 또한 상세목록이 제공되지 않아 구술자 상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구술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즉 Miller Center는 구술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한 과정 및 구술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 등의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술기록과 더불어 구술프로젝트와 관련한 뉴스 및 발간물, 컨퍼런스 등의 각종 자료

도 제공하고 있다.

이상으로 국내외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사례를 고찰하였다. 국내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구술자와 관련된 각종 배경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구술기록의 수집 목적 및 과정, 수집방법 등에 대한 기획단계의 정보들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는 대체로 음성 및 영상자료의 온라인 서비스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녹취록이 적극적으로 서비스 되는 경향을 보인다. 구술채록의 목적과 방향, 구술채록 방법 등에 관한 기획단계의 구술기록 및 정보가 간략하게라도 제공되지만, 면담후기 및 일지 등의 면담자 관점의 정보 제공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술기록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여타의 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를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과 연계된 구술사 연구소가 발달해 있는 해외사례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4.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체계 수립

구술기록의 정체성 확보에 기반이 되는 맥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넓은 의미의 구술기록에서 구술채록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기능과의 연계성과 구술채록 과정 내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구술기록 간의 연계성, 그리고 구술내용의 맥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술기록 맥락이 중요한 것은 구술기록이 다른 기록물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의 맥락은 기본적으로 구술채록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다. 구술기록은 음성 및 영상의 개별 자료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한 프로세스 내의 각 단계 연구 작업이 서로 영향을 미쳐 하나의 구술프로젝트 및 구술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이

렇게 구술기록이 맥락관계를 갖게 될 때 그 가치와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이하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때 구술기록의 맥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단계, 실행단계, 정리단계란 세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며, 아울러 온라인 서비스의 전제가 되는 구술기록의 관리·보존상의 고려사항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기획단계

구술기록 생산 과정은 기획단계, 실행단계, 정리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먼저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획단계의 구술기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구술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관의 배경과 목적
- 구술프로젝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 구술채록 대상 범위
- 구술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주제
- 구술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정책
- 구술프로젝트 참여자 및 수행기간
- 구술아카이브의 향후 방향
- 구술채록 면담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

이와 같은 정보는 구술프로젝트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해당 구술프로젝트가 왜 수행되었고,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를 인식하게 한다. 또한 구술기록의 핵심적인 주제와 관점을 안내하여 구술기록의 이해와 해석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접하는 이용자가 구술기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경우 더욱 유용할 수 있으며, 구술기록에 친근한 연구자 층의 이용자에게도 연구자료 및 프로젝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더불어 기획단계 구술기록은 구술프로젝트를 계획한 기관 업무의 기능과 연계하여 관련 업무의 목적과 계획을 반영시켜준다.

구술채록을 수행하는데 있어 구술자를 선정하는 일과 더불어 면담자를 선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구술채록을 주관하고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면담자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시 면담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는 소홀한 편이다. 구술자와 관련해서는 구술자의 출생지부터 학력, 경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드물며, 제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로 면담자 이름과 직위 정도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Miller Center의 연구자 및 참여자에 관한 정보제공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진 및 이름
- E-mail / Phone
- 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예: 소속기관, 직위, 주요 연구 분야, 구술프로젝트 경험 등)
- 밀러센터 구술사 프로그램에서의 책임 분야 및 역할
- 주요 저서

Miller Center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름과 직위에 국한되지 않고 사진, 연락처부터 연구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 경력, 저서, 그리고 구술사 프로그램에서 참여한 연구 분야와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여 연구자의 구술채록의 경험, 구술채록 연구주제와 연구자의 학문적 연계성, 연구자의 경력 등과 같은 정보는 이용자들에게 구술프로젝트는 물론 구술내용의 전문성, 구술기록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실행단계

실행단계에서는 면담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자료, 음성자료와 면담일지 및 후기, 면담시 기증받은 각종 기증자료 등의 구술기록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면담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행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구술기록이라 할 수 있는 음성 및 영상자료는 직접적으로 구술자의 말이 전달되는 것이며, 특히 영상자료는 구술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 온라인 서비스에 민감할 수 있다. 음성 및 영상자료를 온라인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구술내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뤄지는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뒤의 맥락 없이 특정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공할 경우 내용의 오해와 왜곡을 야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구술자의 비언어적 표현이 구술내용과 해석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영상자료가 주목받고 있다. 반면 온라인 서비스에서 영상자료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음성 및 영상자료를 전 분량 서비스하기 어렵다면, 구술기록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술자의 표정, 제스처, 시선, 억양 등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구술자의 모습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구술자와 면담자의 얼굴 표정을 봄으로써 구술 내용을 분석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자료의 화면구성에서도 구술자 중심적 화면구성과 전반적인 면담상황을 함께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깨끗하면서도 정돈되어 구술 내용에 집중하기가 용이한 반면 일방적인 인터뷰 느낌이 강하다. 후자의 경우 면담상황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전달하고 구술기록의 특성인 구술자와 면담자의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면담일지 및 후기는 구술기록의 쌍방향적 성격을 반영한다. 구술자의

의도와 구술내용 뿐만 아니라 면담을 수행한 면담자의 관점은 구술기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구술기록은 면담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면담자와 구술자가 같은 주제로 면담을 수행할 지라도 매번 다를 결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용자는 면담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영상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면담일지 및 후기는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구술자의 비언어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면담자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 면담일지 및 후기에 포함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면담수행 기본정보(예: 면담자, 구술자, 면담일, 면담 장소 등)
- 면담자가 구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준비과정
- 면담에서 주로 다뤄진 세부 주제
- 면담시 구술자 또는 참여자의 행동 사항
- 면담 전 준비사항 및 특이사항(예: 촬영장비 상태 등)
- 면담장소 및 면담 환경에 대한 설명
- 구술자의 기억력 정도 또는 구술 능력 정도
- 구술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 기존 학설과 다른 구술내용)
- 면담수행 과정에서 면담자의 느낌이나 소감
- 구술자에 대한 면담자의 개인적인 의견

면담일지 및 후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된다. 각 원자료마다 ‘딸림자료’로 제공되거나 구술자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총체적인 면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 공식적인 형식을 갖추기도 하지만 면담자의 자유로운 서술 형식으로 작성되기도 한다.

구술채록 과정에서 면담자는 구술자의 구술기록 공개 및 이용 동의서에 확인을 받는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비단 법적 조치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된다. 구술사 분야의 윤리적 문제는 구술채록 과정에서의 연구 작업과 관련되는데, 하나

는 면담을 위한 구술자의 현명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작성된 녹취록의 법적인 안전함을 말한다.²⁶⁾ 전자의 경우 구술자의 현명한 동의를 이끌기 위한 면담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술자가 구술채록의 목적과 범위, 인터뷰의 가치, 진행과정, 주요 논의 주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하였는가 하는 것이며, 더불어 면담자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녹취록이 작성된다면 구술자가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 그리고 보존 장소, 보존계획, 비공개 부분 및 공개 시점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구술자는 의지에 따라 구술면담을 진행할 수 있고 중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인 서명을 통해 기록되고 규약에 의해 체계화 되며, 구술자와 면담자의 양자 확인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⁷⁾ 이러한 확인사항과 공개 제한 부분, 구술자의 요구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에서 구술기록의 공개 및 이용 범위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구술자의 요구와 동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과 구술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서비스됨을 밝히고 이용자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다.

3) 정리단계

정리단계는 실행단계를 수행하면서 생산 및 수집된 구술기록을 보

26) Thomas L. Charlton, *History of oral history: Foundations and Methodology*, Rowman & Littlefield Pub Inc., 2007, p.127.

27) Thomas L. Charlton, *History of oral history: Foundations and Methodology*, Rowman & Littlefield Pub Inc., 2007, p. 128. 면담에 앞서 이러한 절차가 인터뷰 자체에 내담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논쟁거리지만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것은 구술자의 신뢰를 얻고 구술사 본래의 목적에 대해 구술자를 교육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구술자가 인터뷰에 대해 열정을 창출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훌륭한 인터뷰를 이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존·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녹취록, 상세목록 등을 작성한다. 이러한 정리단계는 구술기록 관리 및 보존에 중요한 기능을 함은 물론 이용자의 활용과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텍스트 분석 및 활용을 위해 작성되는 녹취록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좀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녹취록 구성의 기본은 면담자, 구술자, 면담일, 면담장소 등의 면담 기본 개요와 원자료에 가깝게 작성된 구술 내용으로, 구술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및 구술기록 이용을 위한 관련 정보를 녹취록에 포함하여 녹취록 접근만을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도록 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The Art Institute of Chicago²⁸⁾의 Chicago Architects Oral History Project는 이에 대한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해준다.

- 표지 (Title Page)
- 저작권과 발간물 정책 (Rights and Reproductions Statement)²⁹⁾
- 녹취문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문 (Preface)³⁰⁾
- 개정판 서문 (Preface to Revised Edition)
- 상세목록 (Outline of Topics)
- 구술내용 (Interview Transcript)
- 참고자료 (Selected References)
- 구술자 이력정보 (Curriculum Vitae)
- 성명목록 (Index of Names and Buildings)

28) <<http://www.artic.edu/aic>>

29) 'Rights and Reproductions Statement'에서는 오직 연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The Ryerson and Burnham Libraries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 기관의 허가 없이 인용, 이용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한다.

30) 구술프로젝트 수행기관 및 목적, 주요 핵심주제, 과정 등에 관한 서술을 내용으로 한다.

Chicago Architects Oral History Project에서 제공하는 녹취록은 위와 같은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술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중 성명은 알파벳순으로 정리하고 구술내용에 언급되는 성명목록과 해당 이름이 나타난 녹취록의 페이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데, 이는 녹취록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술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점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녹취록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구술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정보가 미비한 사례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상에서 너무 많은 메뉴와 관련 정보를 나열할 경우 이용자가 오히려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나 그렇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녹취록을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구술기록의 맥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녹취록은 음성 및 영상자료의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또는 음성 및 영상자료가 부분적으로만 제공되어 구술내용의 맥락을 헤칠 위험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도 구술기록의 음성 및 영상자료의 온라인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려된다. 녹취록의 경우 작성자에게 책임소재가 있으나 전체 음성자료에 대한 공개는 무책임하게 내용 자체가 왜곡 변형될 소지를 갖기 때문이다. 음성자료는 청취자의 해석에 따라 다른 내용이 되므로 청취자인 해석자에 따라 다른 자료가 될 수 있다.³¹⁾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술기록의 구술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음성 및 영상자료를 제공하되 더불어 구술내용의 맥락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녹취록을 서비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녹취록을 온라인 서비스 할 경우 구술자가 요청한 비공개 부분 및 공개 제한이 필요한 부분은 구술내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삭제 후 서비스되어야 한다. 일부분 공개 제한되어 있다고 구술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31) 한국구술사연구회, 『방법과 사례, 구술사』, 선인, 2005, pp.233-234.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음성 및 영상자료와 함께 이용 할 때 녹취록의 구술내용마다 시간표기를 해 두는 경우 관심 있는 구술내용 접근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녹취록 작성도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이다. 상세목록은 녹취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하고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구술기록의 상세목록은 이전까지는 간략한 개요식으로 핵심적인 주제를 정리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상세목록을 바탕으로 기술항목을 작성한다면 단지 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경우 너무 간소한 상세목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생산된 구술기록의 전체목록 및 수행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구술 관련 기관이나 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구술채록을 수행한 바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우 음성 및 영상자료의 온라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지만 수행된 프로젝트 및 구술기록 목록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술기록을 온라인 서비스 하지 않지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구술사 분야 기관간의 연구 작업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수집을 막을 수 있고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구술기록 전체 목록에서는 온·오프라인의 이용 여부를 구분하여 제공한다면, 이용자가 온라인 접속을 통해 구술기록의 생산여부를 확인하고 오프라인으로의 접근을 유도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진작시키는 정보가 된다.

온라인을 활용한 구술기록 서비스에서는 구술자의 ‘현명한 동의(informed consent)’와 접근에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한다. 즉 구술기록이 온라인을 통해 일부 또는 전체가 포스팅 될지 모른다면 면담자는 ‘현명한 동의’의 과정으로서 구술자와 이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에 대해 친근하지 않는 구술자라면 어떻게 ‘현명한 동의’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면담자는 최소한 온라인이란 특성과 구술자의 구술기록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될 경우를 설명해야 한다.³²⁾ 구술기록 공개 및 동의서에 이러한 사항이 첨가되어야 하며, 기관에서는 구술자의 요구와 공개제한 부분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현명한 동의’는 구술자에게만 부여되는 몫이 아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구술기록을 활용하기 위한 바른 자세가 요구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구술기록 온·오프라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구술기록의 특성과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신중하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구술기록의 정체성 및 기록품질을 확보한 온라인 서비스 수립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존의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인터넷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와 제공자 지향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면,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어떠한 과정과 연구 작업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구술기록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바탕으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구축에 있어 구술기록의 맥락을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32) Thomas L. Charlton, *History of Oral History: Foundations and Methodology*, Rowman & Littlefield Pub Inc., 2007, pp.136-138.

을 강조하였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앞서 수행되어야 할 것은 이용자 접근 편의와 효율성을 강조한 기술적인 검색도구 구축이 아닌, 구술 아카이브 자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구술기록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고 구술기록이 지닌 본래적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한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의 정체성이 배제된 구술 아카이브는 단편적인 정보 전달수단에 불과하며, 내용의 정확한 이해성 역시 저하시킨다. 아울러 기록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술 아카이브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구술이 지닌 맥락에 주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구술기록은 구술채록 과정의 특수성과 구술기록이 갖는 성격을 고려하여 특성을 살리고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구술기록의 맥락에 기반 한 온라인 서비스는 또한 구술기록이 과학적인 구술채록 방법에 의거하여 그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후 구술 아카이브가 구술기록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리·보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구술기록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구술기록은 문헌자료의 보완적 역할로써 또한 문헌자료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 자료로써,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조각을 맞추고 빈자리를 메우는 자료로써, 기존의 역사를 대체하는 연구 자료로써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온라인상으로 서비스되는 방식은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구축을 계획하고 기관의 구술기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관계상, 기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시스템적인 체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구술기록이 활용되는 어느 공간에서든 구술기록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 구술기록의 정체성이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소중한

역사 사료이자 기억 유산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구술채록 및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구술기록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며, 구술기록의 생산 및 관리·보존 프로세스 정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술은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안을 기록화시킨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관련 기록, 구술자에 관한 각종 자료의 사전적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자간의 공조 속에 수행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치밀한 사전 준비 및 수행 절차를 지녀야 한다. 이래야만 신뢰할 수 있는 구술기록 생산이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의 기본적인 품질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 구술기록의 장기보존 및 진본성·무결성 유지와 함께 컴퓨터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이용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관련 구술기록 이용가능성 확보와 함께 수정 및 변조가 용이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 속에서도 내용상의 진실성을 확보한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Kim, Myoung-Hun & Han, Ji-Hye

This article intends to establish a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Unlike common record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textual relation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context of oral history archives can include the context of oral history contents in addition to the connection with records produced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work function of agency which performs collecting oral history archives, and the connection between oral history archives form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oral history archives.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context of oral history archives has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in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by researching the plan for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based on the context of oral history archives.

Key words: oral history, oral record, online service, records management